

# 대전엑스포 '93 (1)

## 목 차

1. 대전엑스포 '93, 왜 개최하나?
2. 대전엑스포 '93,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
3. 대전엑스포 '93의 주제와 부제
4. 대전엑스포 '93 해외 참가국 현황

이 글은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홍보국이 발간한 자료로 매월 연재할 예정임 <편집자주>

## 1. 엑스포 '93 왜 개최하나?

엑스포 '93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행사다.

선진국이 바로 저기 눈앞에 보이는데,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의외로 멀고 험하다. 가깝고도 먼 길, 그 험한 길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리려면 우리에게 채찍이 필요하다. 그 채찍이 바로 엑스포 '93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5천달러 시대에 진입한 후, 경제, 사회 등 전반적인 국가 발전이 전환기에 들어서고, '88서울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민 역량을 지속시켜 21세기의 국가 발전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 선진국 진입을 앞당기기 위해 엑스포 '93을 개최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엑스포 '93의 개최 목적을 몇 가지만 살펴 보면, 우선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21세기의 한국과 인류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 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경제 발전의 요체가 되는 과학 기술의 진흥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경제 발전이 없이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문명사회 속에서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이 없는 경제 성장은 곧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따라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첨단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수입 규제의 장벽을 뛰어 넘을 수 있고 고도 성장을 할 수가 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민의 사회·문화적 의식 수준의 향상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국민적 역량을 한데 모은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럴만한 계기가 있어야 하고 그 계기를 엑스포 '93이 제공해 주자는 것이다.

그 다음, 우리 나라의 발전상을 보여 줌으로써 세계 속에 한국의 이미지를 새롭게 심어 주고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발전의 의욕과 희망을 심어 주자는 것이다.

우리는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닌 것을 전 세계에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는 6.25사변 때의 햇볕은 피난민이 아닌 것이다.

불과 30년 동안에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한 우리 나라의 발전상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하여 이상적인 문명사회로 나아가는 인류 공동의 장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두 가지 문제는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이다. 인류 공동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지구촌 전체에 희망을 줄 것이다.

## 2 엑스포 '93,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

엑스포 '93의 개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한 마디로 말해 엑스포는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장기적인 개최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우리 나라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 그만큼 커질 것이다.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 보자.

### ① 경제 도약의 계기가 된다.

엑스포 '93은 우리 나라 상품의 생산성을 높여 주고 첨단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주며, 산업구조의 조정, 기업의 국제화 및 시장 다변화, 지역 균형 발전, 사회 간접자본 확충, 그리고 관광산업 발전, 국제 수지 개선, 경제 파급효과 등을 통해 경제 도약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될 것이다.

### ② 정치·사회 발전을 가져 온다.

엑스포 '93은 경제, 과학기술, 그리고 문화에 비중을 두고 국민 모두가 미래사회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 교육의 장을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식의 선진화와 국제화로 평등사회를 지향하게 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정치와 사회 발전을 가져 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 ③ 지방화 시대를 앞당긴다.

엑스포로 인해 국토의 균형 발전, 지역 경

제 활성화, 개최 지역의 국제화와 선진화를 이룸으로써 지방화 시대를 앞당기고 국가 사회 전체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 ④ 문화예술의 국제화

엑스포에선 전통예술은 물론 컴퓨터 예술, 환경예술에 이르기까지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현대 예술과 미래지향적 예술이 한데 어우러져 펼쳐짐으로써 새로움과 미지의 매력을 향해 나아가는 실험적 도전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문화예술의 구체적 변화와 국제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 ⑤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기술을 혁신하여 산업구조를 바꾸어 나아가갈 때, 우리의 새로운 경제 도약이 가능하다. 엑스포 '93은 첨단 과학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나라 산업 발전에 한 전환점을 마련해 줄 것이다.

### ⑥ 정보화 사회 대응력 극대화

21세기는 각종 정보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대가 될 것이며, 앞으로 우리가 정보화 사회의 물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음 한 세기 동안의 우리의 운명이 결정 될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열리게 된 엑스포 '93은 우리 국민들에게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능력을 극대화시켜 줄 것이다.

## 3 엑스포 '93의 주제와 부제

세계박람회는 1851년의 런던엑스포를 그 효시로 하고 있다.

당시 런던엑스포는 25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로 개최되었다.

빅토리아 여왕이 외교 경로를 통해 각국에 참가 초청을 함으로써 지구촌 축제인 세계 엑스포의 전통은 시작되었다.

그후 뉴욕, 파리, 필라델피아, 시카고, 브뤼셀, 몬트리올, 오사카, 브리즈베인, 세비아 등 세계의 주요 도시에서 40여회에 걸쳐 엑스포가 개최되었다.

통상적으로 엑스포는 주최국 또는 주최 도

시의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개최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개최된다.

처음으로 주제가 정해져 열린 엑스포는 1933년 시카고엑스포였으며, 그 주제는 “세기의 진보”였다. 이후 세계의 엑스포는 평화, 미래, 과학기술, 환경, 발전 등등의 다양한 주제를 앞세우고 엑스포를 특성화시켜 나아갔다.

개발도상국으로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전엑스포 '93의 주제는 “새로운 도약에의 길”이며, 부제는 “전통기술과 현대과학의 조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활용”이다.

대전엑스포 '93의 주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룩한 발전의 성과를 돌이켜 보고 그 과정에서 야기된 여러가지 문제를 함께 검토하여 국민적 역량을 다시 모으는 계기를 만들어 새로운 도약을 해보자는 뜻을 지니고 있다.

사실 지난 20년간의 고도성장이 선진국과 후발개도국의 심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수준 향상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아가는 것이 경제발전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대전엑스포 '93은 우리나라가 88서울올림픽 이후 제고된 국제적 위상을 한차원 높게 끌어올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더 한층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주제 “새로운 도약에의 길”은 바로 이러한 뜻을 축약해 놓은 것이다.

두가지 부제 또한 여러가지 중요한 뜻을 담고 있다.

“전통기술과 현대과학의 조화”는 개발도상국가들과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기술과 첨단과학을 조화롭게 전시하여 서로 돕고, 나아가 차세대 첨단 과학기술의 방향을 전망해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런가 하면,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재활용”은 대전엑스포 '93이 환경문제 해결을 실천하는 엑스포임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부제이다. 즉 그동안의 산업화과정에서 야기된 여러가지 문제들 가운데 부존자원의 고갈이나 공해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

색해 보자는 뜻을 담고 있다.

따라서 자원 재활용의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할 대전엑스포 '93은 전 세계인에게 지난해의 리우 환경선언 이후 그 이념을 구체화하는 최초의 세계박람회로서, 지구 환경 보존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4. 대전엑스포 '93 해외 참가국 현황

BIE(국제박람회기구) 공인을 받은 대전엑스포 '93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는, 얼마나 많은 나라와 국제기구가 참가하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대전엑스포 조직위는 90년 12월 BIE공인을 받고, 91년 초 세계 각국에 참가 초청장을 발송하면서 60개국에 20개 국제기구라는 유치 목표를 세웠다.

짧은 준비기간 동안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위는 외무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펴 왔다.

그 결과 92년 초까지만 해도 20여개국에 불과하던 참가국이 92년 말 1백여개국으로 늘어나, 대전엑스포 '93은 역대 BIE 공인 전문엑스포 가운데 가장 많은 국가가 참가하는 엑스포로 기록될 것이 확실하다.

당초, 92년에 세비아 종합엑스포와 제노아 전문엑스포가 동시에 개최됨에 따라서 양 엑스포 참가에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는 각국이 대전엑스포에는 참가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60개국이라는 유치 목표 달성 자체를 의문시하는 견해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전엑스포 '93이 개발도상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다는 점과 아시아 지역에서 20세기 마지막으로 개최된다는 점, 그리고 그 주제가 시의적절하고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도 모두 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부각되어 해외유치에 있어서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해외 참가국이 많다는 것이 그대로 엑스포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다수 국가가 참가함으로써 발생할 문

(54p에 계속)

타이·커튼 등 홈패션분야에서도 상당한 수요가 일고있다. 특히 「갑순이」를 고유상표로한 양장지와 한복지는 화려하고도 매력적인 무늬로 정평이 나있다. 이 장치는 미국·일본·독일·프랑스·이탈리아·영국 등 섬유산업과 패션의 본고장이라 일컬어지는 나라들에 특허출원중이기도 하다. 東洋纖維 安昌九사장(64)은 『섬유산업이 비록 사양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있지만 기술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찾을 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安사장의 이같은 소신을 입증하듯 東洋纖維는 실용신안6건, 의장6건 등 당량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전기압력밥솥 제어장치

마마전기 馬吉平 사장

압력밥솥은 밥맛이 좋고 영양분 손실이 적은 등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압력에 견디기 위한 두꺼운 재질을 사용, 내부온도를 정확히 잴수 없어 온도가 자동제어되는 전기압력밥솥은 생산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수용가 소비전력의 전압이 들쭉날쭉한 점도 개발의 장애요인으로 지목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에 中央日報 사장賞을 받은 마마전기의 전기압력밥솥은 내부에 마이크로 컴퓨터 시스템을 장착, 고르지 못한 전력을 조정하고 온도도 자동조절할 수 있어 그동안의 難題가 한꺼번에 해결됐다는 평을 듣고 있다. 또 1백10V·2백20V 겸용이어서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혀주고 있다. 밥솥에 관련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일본조차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획기적 기술이라는 칭찬도 듣고있다. 마마전기는 지난 80년 전기압력밥솥을 개발, 시판했으나 온도감지가 제대로 되지않는 등 여러가지 미비점으로 제품을 거둬들이는 뼈아픈 경험도 갖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중소기업은 특허된 첨단기술을 개발해 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馬吉平사장(50)의 집념이 기여이 완벽한 제품을 탄생시키는 밑거름으로 작용한 것이다. 馬사장은 또 연구개발비를 따로 정하지 않고 필요한만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36p에서 계속>

제점도 많기 때문이다.

즉 국제관의 전시면적이 부족할 소지와 전반적인 전시내용의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 등이다.

따라서 앞으로 조직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해외 참가국들의 수준높은 전시와, 주제에 적합한 전시를 유도하는 작업일 것이다.

이미 서구의 EC(유럽공동체) 및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가, 일본, 캐나

다, 호주 등 선진국은 상당한 규모의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충실한 전시 내용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재정적으로 참가 비용에 부담을 갖고 있는 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국가 등 여러 개발도상국의 경우 공동관 참가를 유도하는 등 전시면적의 부족을 극복하고 우수한 전시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